

2022. 5. 4.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22.4월말 기준)

홍서희 | 책임연구원(3705-6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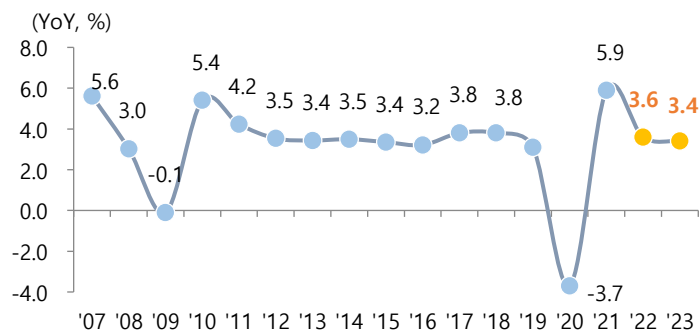
정예지 | 연구원(3705-6176)

- **세계(-0.1%p ↓):**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봉쇄와 러시아산 에너지공급 불확실성이 글로벌 성장에 추가적인 하방위험으로 작용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점증(Barclays)
 - **미국(-0.4%p ↓):** 1분기 역성장(-1.4%, qoq saar) 불구 소비(2.7%), 투자(2.3%) 등 내수 지표는 견조했으며 서비스 회복 등에 힘입어 금년말까지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Citi)
 - 연준은 5월 50bp 인상을 시작으로 고강도 긴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인플레이션 지속시 긴축 속도가 더욱 빨라질 리스크 '23년 이후 연준발 리세션 확률 35~40%(Nomura)
 - **유로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1분기 성장세가 부진(0.2%, qoq)하게 나타난 가운데 러시아산 가스수입 중단 시 배급제 시행에 따른 심리악화, 교역감소 등으로 유로존 성장률이 2년간 5%p 낮아질 우려. 특히 독일, 이탈리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Barclays)
 - 인플레이션 기대 불안 등에 따른 ECB 금리인상 조기화('22년 4회, '23년 2회)가 경제에 추가 부담(BoA)
 - **중국(-0.3%p ↓):** 코로나 봉쇄조치가 광범위한 공급망 차질을 초래함에 따라 '22년 성장률을 0.6%p 하향, 이는 연중반까지의 점진적 정상화를 가정한 것이며 봉쇄 확대 시 3.5%까지 하락 리스크(BoA)
 - **일본(-0.1%p ↓):** 中 봉쇄에 따른 자동차부품 공급망 악화로 4~5월 산업생산에 타격이 불가피(BoA). 정부는 에너지 물가 대책(6.2조엔)을 발표했으며 일본은행은 엔화약세 불구 조기 정책정상화 기대를 저지(Barclays)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22 ^f	2023 ^f
Barclays	3.2	3.4
BNP Paribas	4.8	3.8
BoA-ML	3.3	3.4
Citi	3.4	3.1
Goldman Sachs	3.3	3.3
JP Morgan	3.7	3.4
Nomura	3.4	3.0
Societe Generale	3.7	3.6
UBS	3.3	3.4
평균	3.6(-0.1)	3.4(0)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전년대비, 구매력평가(PPP)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각각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2Q	22.3Q	22.4Q	23.1Q		
Barclays	5.0	4.0	2.5	2.0	3.2	2.3
BNP Paribas	-	-	-	-	3.7	2.5
BoA-ML	3.5	2.5	1.8	-	2.7	1.8
Citi	2.8	2.7	2.2	1.8	3.3	2.1
Goldman Sachs	3.0	2.5	2.3	2.0	2.6	2.2
JP Morgan	3.3	3.5	2.5	2.5	2.8	2.3
Nomura	2.6	2.6	1.8	1.0	2.5	1.3
Societe Generale	3.5	1.9	1.9	2.7	3.2	2.5
UBS	3.1	2.8	2.5	2.2	3.4	2.3
평균	3.4(0.2)	2.8(-0.1)	2.2(0)	2.0	3.0(-0.4)	2.1(-0.1)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2Q	22.3Q	22.4Q	23.1Q		
Barclays	0.3	1.4	2.1	2.5	2.4	2.1
BNP Paribas	-	-	-	-	2.8	2.7
BoA-ML	0.6	0.9	1.9	1.7	2.8	1.7
Citi	0.6	1.2	2.2	3.0	2.4	2.7
Goldman Sachs	1.0	1.4	1.6	2.3	2.6	1.9
JP Morgan	2.3	3.0	2.8	3.0	3.1	2.8
Nomura	1.6	1.2	1.2	1.2	2.6	1.4
Societe Generale	1.2	2.2	2.2	2.1	3.1	2.1
UBS	2.2	2.7	2.5	2.5	2.9	2.2
평균	1.2(0.1)	1.8(0)	2.1(-0.1)	2.3	2.7(0)	2.2(0)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2Q	22.3Q	22.4Q	23.1Q		
Barclays	3.3	4.6	4.3	5.1	4.3	5.3
BNP Paribas	-	-	-	-	4.5	5.5
BoA-ML	(1.6)	(4.2)	(5.0)	-	4.2	5.0
Citi	4.7	5.0	5.7	5.2	5.1	4.8
Goldman Sachs	4.0	5.0	4.3	4.2	4.5	5.0
JP Morgan	(1.6)	(4.9)	(7.3)	(5.5)	4.6	5.2
Nomura	1.8	4.5	4.5	4.3	3.9	5.1
Societe Generale	3.6	5.0	4.8	6.0	4.3	5.8
UBS	3.3	4.4	4.2	4.5	4.2	5.4
평균	3.5(-0.6)	4.8(-0.3)	4.6(-0.3)	4.9	4.4(-0.3)	5.2(0)

* 분기별 전망은 전년동기대비, ()는 전기대비 연율. 평균은 전기비연율 값을 제외하고 계산.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평균의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2Q	22.3Q	22.4Q	23.1Q		
Barclays	6.0	4.8	1.7	1.3	2.4	1.9
BNP Paribas	-	-	-	-	1.6	2.0
BoA-ML	8.3	3.9	0.8	-	2.4	1.5
Citi	5.7	2.5	2.2	1.9	2.0	2.0
Goldman Sachs	3.6	2.6	1.9	1.4	1.5	1.8
JP Morgan	4.0	3.5	2.5	1.0	1.6	1.8
Nomura	13.7	3.8	3.1	2.7	2.1	2.9
Societe Generale	4.3	2.9	1.9	1.3	1.8	1.9
UBS	5.7	3.6	1.9	0.3	2.2	1.8
평균	6.4(-0.1)	3.5(0)	2.0(0)	1.4	2.0(-0.1)	2(0.1)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53 혹은 shho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